

일정안내

수요기도모임	식사 준비	주요 교회행사
03.04 양순모	03.08 프리토리아+퍼스	03.08 총목자모임
03.11 권영준	03.15 프리토리아+퍼스	
예배당 청소	예배기도	
03.08 프리토리아+퍼스	03.08 권영준 조혜정	
03.15 프리토리아+퍼스	03.15 권오윤 김장원	

지난 주 현황

헌금		감사의 제목	
실일조	1,060,000	작정헌금	450,000
주일헌금	350,000	기타헌금	50,000
주일학교/다윗부헌금	27,000	선교헌금	100,000
감사헌금	140,000	건축헌금	60,000
목적헌금	-	성찬헌금	-

목장별 VIP 명단

목장	VIP 명단
프리토리아	유현철 김현아 김지혜 문기식 송가희
베를린	김수진 이혜림 이혜주
키르기스	박주혁 한준호 박수진 김완영 최재광 강성은 김성호 황정준
퍼스	이승주 정보민 김성원 김장운 신은영 최민영
땅 끝까지	배민경 장현정 김용현 김범수 이경주
나짱	이진아 이세라 민지은 김소혜 진서울
발리	이산아 우경민 심현섭 센센스루잉

교회소식

1. 다음 주일(8일) 점심 식사 후 총목자모임 있습니다.
2. 감사 떡: 예담교회 목회 12년(목사님 가정)

목회칼럼

올리브 땅, 계속되는 기적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 그리고 헌신으로 올땅 사역이 어느덧 1년 5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 지역의 어린 영혼 300여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300명이 넘고 나서부터 숫자를 세지 않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숫자가 우리의 의(?)가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내주신 하나님이시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어린이 붕어빵 유퀴즈가 열립니다. 벌써 60차례 가까이 이어 온 시간들입니다. 눈보라가 치던 영하 10도의 매서운 날에도, '오늘은 아무도 오지 않겠지' 하는 인간적인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할 어린 영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님을 다시금 느낍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의 열심이나 프로그램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솔직한 마음을 나누자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 동네에서 올땅을 통해 전도할 수 있는 아이들은 이제 거의 다 만난 것이 아닐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 판단으로는 이제 마무리를 생각할 시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매주는 아니지만 친구 손에 이끌려 처음 오는 아이가 있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 없고, 복음을 처음 듣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두 손을 모으고 예수님을 간절히 영접하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은 다시 흔들립니다. '조금 더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주님이 아직 문을 닫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먼저 닫으려는 것은 아닐까?'

올땅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시작도 주님이 하셨고, 마침도 주님이 정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땅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숫자가 아닌 한 영혼의 가치를 잊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치지 않도록, 그러나 욕심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만약 주님께서 "조금 더"라고 하신다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이제 됐다"라고 하신다면 감사함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땅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향해 드리는 작은 등불입니다. 그 등불이 주님의 뜻 안에서 밝게 타오르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마무리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 교회되기를 소망합니다.

29

성도여 다 함께

(통 29)

찬양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계 19:4)

MADRID: 6.6.6.6.D.
Traditional Spanish Melody
Arr. by B. Carr, 1824
Harm. by D. Evans, 1927

C. H. Bateman, 1843

보통으로

1.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 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2. 밤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3. 주 찬양 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 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

인도자 : I.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회 중 :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인도자 : II. 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회 중 :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인도자 : III.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회 중 :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38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통일 364)

Nearer, my God, to Thee
 시련과 극복
 S. F. Adams, 1841
 땅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보충으로 (창 28:12)
 BETHANY: 6.4.6.4.6.6.6.4.
 L. Mason, 1856

1.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2.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3.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4.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들생들
 자베명단
 가개길을
 짐베되쌍
 같고나은
 은잠니것
 고같은본
 생습해반
 이니로아
 서

내꿈천숨
 일에서질
 생도날때
 소소부되
 원원르도
 은이니룩
 늘늘늘늘
 찬찬찬찬
 송송송송
 하하하하
 면면면면
 서서서서

주께더나가기원합니다아멘

축복의 사람

♩ = 70 작사/곡 설경옥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 하 - 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
 가 밭는 땅 어디에서라도 - 주님의 이름 높아 질 거예요

<http://cafe.daum.net/jlovesm>